

배포일시	2010. 07. 26.(월) 11:00 (총12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담당자	대장 이동한
		전화번호	053-952-0366

8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대구·경북)

- 연중 가장 더운 8월, 폭염 대비 필요 -

□ 8월의 기상 특성

- 8월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연중 가장 무더운 달이며,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림. 최근에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호우가 빈발함.
-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열대 기류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최성기로서 대기의 불안정 현상이 가장 심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북 산악지역은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됨.
- 폭염 현상은 대구, 의성, 영천, 구미, 포항 등 경북남부내륙지방과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며, 열대야는 대구, 포항 등 경북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남.
- 평년 8월에 태풍은 5.5개가 생겨 그 중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8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집중호우

최근 5년간 8월의 일 강수는 2008년 8월 15일 대구에서 135.0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 강수는 2005년 8월 25일 포항에서 89.5mm를 기록했음. 2005년 8월 25일의 강수는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북동류가 유입되어 동해안지방으로 수렴이 나타나면서 시간당 60~9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2008년 8월 15일의 강수는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경북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7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낙뢰 등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폭염과 열대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폭염 현상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데, 월별로 보면 8월>7월>6월>9월 순으로 많이 나타나 8월에 폭염과 열대야가 가장 많음. 최근 5년간 8월에 폭염 일수(일 최고기온 33℃이상, 일 최고열지수 32℃이상)는 대구가 60일로 가장 많았고, 의성이 55일, 영천 54일, 구미 49일, 포항 38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8월에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52일로 가장 많았고, 포항 42일, 영덕 11일, 영천과 울진이 각각 7일 나타났음.

폭염이 예상될 시는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등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함.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함. 양계장, 축사, 돈사 등에서는 가축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 태풍

평년 8월에 5.5개가 생겨나고, 그 중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작년 8월에는 5개의 태풍이 생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음. 8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2002년 8월 31일 지나간 태풍 “루사(RUSA)”로 사망·실종 246명,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태풍 접근 시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표1. 평년 8월 기온 및 강수량 단위 : 기온 ℃, 강수량 mm

8월	대구·경북	대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평균기온	24.8	26.1	25.4	24.9	23.8	24.2	24.6	24.5	24.7	25.1
최저기온	20.9	22.4	22.4	20.8	20.7	19.8	20.6	20.8	20.1	20.9
최고기온	29.6	30.9	29.3	30.2	27.3	29.6	29.8	28.8	30.5	30.2
강수량	212.0	205.8	207.9	202.1	191.7	258.3	239.1	201.9	197.7	203.9

표2. 8월 일최고기온 극값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5.08.14	37.0	1995.08.07	36.6	1984.08.11	36.6	1995.08.18	36.4	1994.08.03	36.4
안동	1994.08.09	36.8	1984.08.10	36.8	1996.08.02	36.7	1990.08.06	36.7	1977.08.01	36.7
상주	2006.08.08	36.6	2006.08.15	35.7	2006.08.10	35.6	2006.08.09	35.5	2006.08.07	35.5
포항	1994.08.06	38.2	1944.08.04	38.1	1984.08.11	37.9	1977.08.02	37.9	1983.08.03	37.8
대구	1942.08.01	40.0	1932.08.01	39.3	1995.08.14	39.2	1915.08.05	39.0	1977.08.02	38.8
봉화	1988.08.04	37.4	1988.08.03	37.4	1995.08.15	35.8	1988.08.10	35.8	1988.08.01	35.6
영주	1988.08.04	36.0	1996.08.02	35.8	1984.08.10	35.8	1983.08.06	35.7	1990.08.06	35.6
문경	1983.08.05	37.1	1984.08.10	36.8	1984.08.09	36.4	1988.08.03	36.3	1984.08.12	36.3
영덕	1983.08.06	38.0	1984.08.11	37.7	1995.08.14	37.6	1983.08.07	37.4	1983.08.03	37.0
의성	1995.08.14	37.5	1984.08.10	37.4	2006.08.15	37.3	2006.08.04	37.2	1996.08.12	37.2
구미	1995.08.14	37.3	1984.08.10	37.2	1995.08.13	37.1	2006.08.15	37.0	1995.08.07	36.7
영천	1984.08.10	38.5	1996.08.03	37.9	1995.08.14	37.5	1984.08.09	37.4	2001.08.04	37.3

표 3. 8월 일강수량 극값 단위 : mm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1.08.23	279.0	1971.08.05	248.0	1993.08.10	197.7	2002.08.07	162.5	1993.08.08	153.4
안동	2004.08.18	129.5	2002.08.07	115.5	1993.08.08	114.1	1998.08.16	111.8	1995.08.30	109.0
상주	2002.08.31	192.5	2004.08.18	131.0	2003.08.19	115.5	2008.08.15	105.0	2003.08.18	86.5
포항	1991.08.23	315.6	1993.08.10	175.2	1987.08.31	165.8	1949.08.18	157.5	1972.08.19	134.1
대구	1982.08.14	210.1	1985.08.17	182.6	1981.08.30	174.1	1968.08.16	170.0	2004.08.18	161.0
봉화	2002.08.06	241.5	2002.08.07	211.5	1999.08.02	209.5	1993.08.08	160.0	2004.08.18	121.0
영주	1993.08.08	227.0	2002.08.07	199.5	1999.08.02	184.0	2002.08.06	182.0	1981.08.30	153.9
문경	1999.08.02	142.5	2002.08.06	136.5	1993.08.08	134.5	2002.08.31	127.0	1998.08.11	114.5
영덕	1991.08.23	296.0	2004.08.19	153.5	2002.08.31	138.5	1982.08.14	123.7	2005.08.25	121.5
의성	2004.08.18	215.5	1998.08.16	155.5	1995.08.25	120.5	2005.08.03	117.0	1981.08.30	112.5
구미	2004.08.18	202.0	1998.08.16	185.5	1995.08.30	151.0	2005.08.03	133.5	2002.08.31	132.0
영천	1981.08.30	190.1	1982.08.14	153.7	2002.08.31	135.5	1991.08.23	135.2	1972.08.19	129.4

※ 첨부 : 8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8월 기상재해 정보(대구·경북)

-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대구기상대
2010년 7월 26일 11시 발표

□ 8월의 기상 특성

- 8월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연중 가장 무더운 달이며,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림. 최근에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호우가 빈발함.
-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열대 기류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최성기로서 대기의 불안정 현상이 가장 심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북 산악지역은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됨.
- 폭염 현상은 대구, 의성, 영천, 구미, 포항 등 경북남부내륙지방과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며, 열대야는 대구, 포항 등 경북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빈번히 나타남.
- 평년 8월에 태풍은 5.5개가 생겨 그 중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최근 5년간 8월 기상 재해 사례

○ 집중호우

최근 5년간 8월의 일 강수는 2008년 8월 15일 대구에서 135.0mm로 가장 많이 왔으며, 1시간 최다 강수는 2005년 8월 25일 포항에서 89.5mm를 기록했음. 2005년 8월 25일의 강수는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북동류가 유입되어 동해안지방으로 수렴이 나타나면서 시간당 60~9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2008년 8월 15일의 강수는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경북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7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 배수로, 하천시설, 낙뢰 등에 취약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함.

○ 폭염과 열대야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폭염 현상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데, 월별로 보면 8월>7월>6월>9월 순으로 많이 나타나 8월에 폭염과 열대야가 가장 많음. 최근 5년간 8월에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이상, 일최고열지수 32℃이상)는 대구가 60일로 가장 많았고, 의성이 55일, 영천 54일, 구미 49일, 포항 38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8월에 열대야 일수는 대구가 52일로 가장 많았고, 포항 42일, 영덕 11일, 영천과 울진이 각각 7일 나타났음.

대구·경북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강수일수가 적고, 소백산맥, 태백산맥 등 주변의 산맥 영향으로 발생하는 유사 편현상과 강한 지면 가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와 지리적 영향 때문임. 특히, 포항, 울진 등 동해안지역은 남서풍이 불 때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기온이 발생될 때도 있음.

폭염이 예상될 시는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등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함.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을 많이 섭취하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함. 양계장, 축사, 돈사 등에서는 가축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가 필요함.

표 1. 최근 5년(2005~2009년) 8월 지점별 폭염 일수

지점명	대구	의성	영천	구미	포항	상주	영덕	안동	영주	문경	울진	봉화	평균
2005년	8	5	10	7	7	4	5	2	4	0	3	1	4.7
2006년	19	19	20	17	13	16	14	13	12	15	1	7	13.8
2007년	16	16	17	12	13	8	9	7	4	5	4	1	9.3
2008년	13	13	6	11	3	5	4	7	6	2	2	0	6.0
2009년	4	2	1	2	2	1	1	1	1	1	0	1	1.4
합계	60	55	54	49	38	34	33	30	27	23	10	10	35.2
평균	12.0	11.0	10.8	9.8	7.6	6.8	6.6	6.0	5.4	4.6	2.0	2.0	7.1

표 2. 최근 5년(2005~2009년) 8월 지점별 열대야 일수

지점명	대구	포항	영덕	영천	울진	구미	영주	의성	안동	봉화	문경	평균
2005	9	12	4	3	4	3	4	0	0	0	0	3.5
2006	17	12	1	1	0	1	0	1	0	0	0	3.0
2007	18	12	3	2	2	0	0	1	0	0	0	3.5
2008	7	4	3	1	1	2	0	1	1	0	0	1.8
2009	1	2	0	0	0	0	0	0	0	0	0	0.3
합계	52	42	11	7	7	6	4	3	1	0	0	12.1
평균	10.4	8.4	2.2	1.4	1.4	1.2	0.8	0.6	0.2	0	0	2.4

○ 태풍

평년 8월에 5.5개가 생겨나고, 그 중 1.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작년 8월에는 5개의 태풍이 생겼으나,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음. 8월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은 2002년 8월 31일 지나간 태풍 “루사(RUSA)”로 사망·실종 246명,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태풍 접근 시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태풍 발생수	0.5	0.1	0.4	0.8	1.0	1.7	4.1	5.5	5.1	3.9	2.5	1.3	26.7
	태풍 영향수	0.0	0.0	0.0	0.0	0.0	0.3	1.0	1.3	0.8	0.1	0.0	0.0	3.4

※ 붙임 : 8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 붙임 】

8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8월 지역별 평년 기후값 및 극값

□ 기후 평년값 (8월)

평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5.8	27.2	26.4	25.9	24.7	25.1	25.6	25.4	25.6	26.0
중 순	25.1	26.4	25.6	25.3	24.0	24.5	25.0	24.7	25.1	25.3
하 순	23.7	24.9	24.4	23.8	22.9	23.0	23.4	23.5	23.6	24.0
평 균	24.9	26.2	25.5	25.0	23.9	24.2	24.7	24.5	24.8	25.1

최저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1.8	23.3	23.1	21.7	21.6	20.7	21.4	21.4	21.0	21.6
중 순	21.3	22.7	22.7	21.2	21.0	20.1	20.9	21.1	20.4	21.2
하 순	19.9	21.3	21.5	19.8	19.7	18.7	19.4	19.8	19.1	19.8
평 균	21.0	22.4	22.4	20.9	20.8	19.8	20.6	20.8	20.2	20.9

최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30.7	32.1	30.6	31.2	28.2	30.6	30.8	29.9	31.4	31.2
중 순	29.9	31.1	29.4	30.7	27.4	30.1	30.3	28.9	31.0	30.4
하 순	28.4	29.5	28.1	29.0	26.4	28.3	28.4	27.8	29.2	29.0
평 균	29.7	30.9	29.4	30.3	27.3	29.7	29.8	28.9	30.5	30.2

강수량

단위 : 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63.3	51.8	57.5	60.2	51.6	91.8	76.5	61.2	58.0	61.4
중 순	55.9	62.4	49.2	56.0	50.1	64.9	73.3	44.0	54.2	49.4
하 순	92.7	91.6	101.2	85.8	90.0	101.6	89.2	96.6	85.5	93.1
합 계	212.0	205.8	207.9	202.0	191.7	258.3	239.0	201.8	197.7	203.9

(평년기간 : 대구, 포항, 울진(1971~2000년),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1973~2000년))

□ 8월 일최고기온(℃)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5.08.14	37.0	1995.08.07	36.6	1984.08.11	36.6	1995.08.18	36.4	1994.08.03	36.4
안동	1994.08.09	36.8	1984.08.10	36.8	1996.08.02	36.7	1990.08.06	36.7	1977.08.01	36.7
상주	2006.08.08	36.6	2006.08.15	35.7	2006.08.10	35.6	2006.08.09	35.5	2006.08.07	35.5
포항	1994.08.06	38.2	1944.08.04	38.1	1984.08.11	37.9	1977.08.02	37.9	1983.08.03	37.8
대구	1942.08.01	40.0	1932.08.01	39.3	1995.08.14	39.2	1915.08.05	39.0	1977.08.02	38.8
봉화	1988.08.04	37.4	1988.08.03	37.4	1995.08.15	35.8	1988.08.10	35.8	1988.08.01	35.6
영주	1988.08.04	36.0	1996.08.02	35.8	1984.08.10	35.8	1983.08.06	35.7	1990.08.06	35.6
문경	1983.08.05	37.1	1984.08.10	36.8	1984.08.09	36.4	1988.08.03	36.3	1984.08.12	36.3
영덕	1983.08.06	38.0	1984.08.11	37.7	1995.08.14	37.6	1983.08.07	37.4	1983.08.03	37.0
의성	1995.08.14	37.5	1984.08.10	37.4	2006.08.15	37.3	2006.08.04	37.2	1996.08.12	37.2
구미	1995.08.14	37.3	1984.08.10	37.2	1995.08.13	37.1	2006.08.15	37.0	1995.08.07	36.7
영천	1984.08.10	38.5	1996.08.03	37.9	1995.08.14	37.5	1984.08.09	37.4	2001.08.04	37.3

□ 8월 일강수량(mm)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91.08.23	279.0	1971.08.05	248.0	1993.08.10	197.7	2002.08.07	162.5	1993.08.08	153.4
안동	2004.08.18	129.5	2002.08.07	115.5	1993.08.08	114.1	1998.08.16	111.8	1995.08.30	109.0
상주	2002.08.31	192.5	2004.08.18	131.0	2003.08.19	115.5	2008.08.15	105.0	2003.08.18	86.5
포항	1991.08.23	315.6	1993.08.10	175.2	1987.08.31	165.8	1949.08.18	157.5	1972.08.19	134.1
대구	1982.08.14	210.1	1985.08.17	182.6	1981.08.30	174.1	1968.08.16	170.0	2004.08.18	161.0
봉화	2002.08.06	241.5	2002.08.07	211.5	1999.08.02	209.5	1993.08.08	160.0	2004.08.18	121.0
영주	1993.08.08	227.0	2002.08.07	199.5	1999.08.02	184.0	2002.08.06	182.0	1981.08.30	153.9
문경	1999.08.02	142.5	2002.08.06	136.5	1993.08.08	134.5	2002.08.31	127.0	1998.08.11	114.5
영덕	1991.08.23	296.0	2004.08.19	153.5	2002.08.31	138.5	1982.08.14	123.7	2005.08.25	121.5
의성	2004.08.18	215.5	1998.08.16	155.5	1995.08.25	120.5	2005.08.03	117.0	1981.08.30	112.5
구미	2004.08.18	202.0	1998.08.16	185.5	1995.08.30	151.0	2005.08.03	133.5	2002.08.31	132.0
영천	1981.08.30	190.1	1982.08.14	153.7	2002.08.31	135.5	1991.08.23	135.2	1972.08.19	129.4

□ 8월 1시간 최다강수량(mm) 극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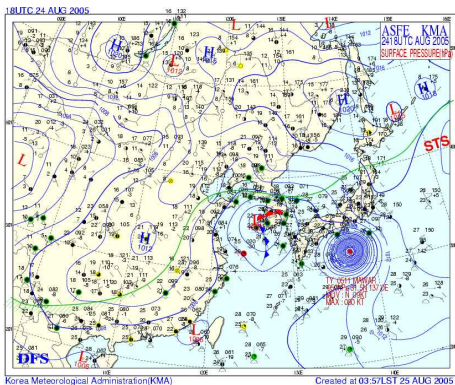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75.08.13	42.0	1991.08.23	39.5	1985.08.10	38.4	1971.08.05	36.5	1990.08.31	34.9
안동	1995.08.15	56.5	1976.08.03	41.0	1975.08.07	39.0	1990.08.09	38.0	2004.08.14	32.5
상주	2004.08.04	43.5	2008.08.15	32.0	2002.08.31	27.0	2003.08.19	23.0	2009.08.12	21.5
포항	2005.08.25	89.5	2004.08.14	60.5	1989.08.30	49.5	1987.08.31	48.0	1983.08.29	43.5
대구	1939.08.13	76.8	1931.08.12	75.2	2008.08.15	69.0	1982.08.14	61.4	1959.08.31	55.6
봉화	1999.08.02	67.5	2007.08.01	46.5	1997.08.19	43.0	2002.08.06	39.5	1993.08.08	33.0
영주	1978.08.16	86.0	1994.08.28	69.0	1987.08.03	60.0	1999.08.02	51.0	1980.08.31	50.5
문경	1995.08.15	64.5	1999.08.02	48.5	1994.08.28	47.0	1992.08.08	45.0	1998.08.08	42.5
영덕	1982.08.14	69.5	2005.08.25	61.5	2004.08.19	42.0	2000.08.26	39.5	1994.08.01	37.5
의성	1976.08.06	47.5	2004.08.04	46.0	1977.08.31	42.0	2006.08.08	41.0	2008.08.12	40.5
구미	2004.08.04	47.5	2005.08.03	47.0	2008.08.15	45.5	1978.08.29	44.5	1995.08.30	41.5
영천	1988.08.16	61.5	1998.08.09	60.5	1978.08.08	51.5	1995.08.01	51.0	1999.08.03	47.0

2. 기상재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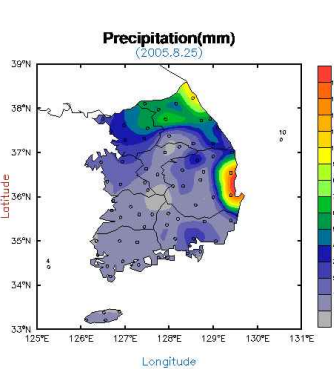
□ 집중호우(2005. 8. 25. - 포항, 영덕)

○ 기압계 및 기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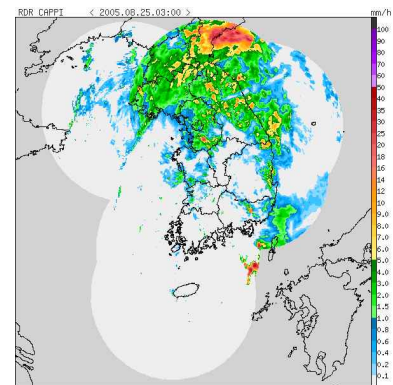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동해안지방에 북동기류로 인하여 시간당 60~90mm의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었음. 이날 포항은 1시간 최다강수량이 89.5mm로 8월 극값 1위, 영덕은 61.5mm로 8월 극값 2위를 기록하였음.



2005. 8. 25. 03:00 지상일기도



2005. 8. 25. 일강수량 분포



2005. 8. 25. 03:00 레이더영상

○ 지점별 관측자료(2005. 8. 25.)

단위 : mm

지 점	포항	영덕	문경	울진	영주	영천	봉화	상주	안동
1시간 최다 강수량	89.5	61.5	14.0	13.5	8.0	8.0	4.5	4.5	3.8

○ 집중호우 재해 관련 기사

포항 180mm 집중호우 상가 주택가 침수

24-25일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영남 동해안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큰 비가 내리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해당 지역 지방기상청과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이들 지역의 강수량은 경북 포항 180.5mm, 영덕 150.5mm, 울진 50mm를 비롯해 강원도 미시령 150mm, 마관령 112.5mm, 속초 96mm, 강릉 70mm 등을 각각 기록했다.

이로 인해 상습 침수지역인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장양시장 주변의 상가와주택, 우항동 주택가 등 150여가구가 한때 침수될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포항 상대동 일대 농경지 0.3ha가 침수됐고, 포항 죽도동 옛 청룡화관 주변도로를 포함해 포항역+포항5거리 300m 구간 등 포항 시내 주요도로 5-6곳의 교통이 침수로 오전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침수지역은 대부분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라서 짧은 시간에 침수가 왔으며, 포항 장양시장 주변에 설치된 간이홍조끼가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이날 오전부터 호우 피해지역에서 **홍조끼**를 동원, **울진** **북구** 지역을 벌여 해수를 환류하고 **천막**을 소용시킨 뒤 정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0분에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56번 지방도로 미시령 3부 능선 동서(남)교차점의 **홍벽**이 호우로 침수되면서 **인명**과 고성을 잇는 미시령구간의 차량 운행이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술개마을에서는 주택 4채가 침수되거나 암이 무너져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으며, 24일 오후 1130분에는 울주군 중문면에서 밤늦게서야 하던 이모(24세) 등이 떨어진 물에 고립됐다 3시간여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에 경남, 북 지역에 내리겠다 호우주의보와 경북 등 기상특보와 강원도 지역에 내리겠다 기상특보를 오후 1시를 전후해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안에 오후 늦게까지 5-2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연합)

2005. 8. 25. 영남일보

포항제철소, 자매마을 수해복구 '앞장'

현장서 침수가옥 보수·오물수거 등 구슬땀
기사입력 | 2005-08-26



포항지역에 폭우가 내리자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자매마을로 달려가 긴급복구의 구슬땀을 흘렸다.

25일 포항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비피해가 발생하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발벗고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작업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포항제철소 냉연부(부장 김동호) 직원 100여명은 25일 자매마을인 장량동을 찾아 집중호우로 침수된 가옥을 보수하고 도로변의 **오물**을 수거했다.

24, 25일 이틀동안 150mm의 비가 내린 장량동 일대에서는 주택과 **살가** 80여 가구와 차량 50여대가 침수되고 200여명의 주민들이 장량동 사무소와 인근 주택으로 대피해 있는 상태이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포항제철소 설비부 장성환 부장(51)이 장량동사무소를 방문, 이번 수해로 상실에 잠긴 이웃들에게 생필품(라면 10개, **벤너** 1개, 가스 4통, 생수 3병) 100세트와 라면 100팩스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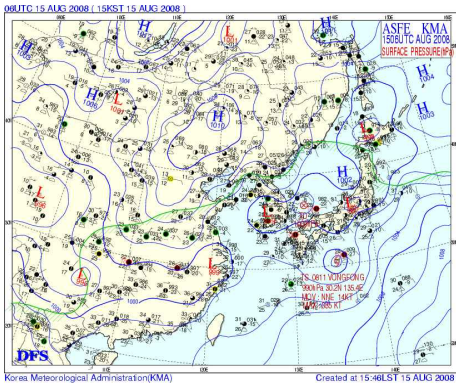
이한웅기자 star@kyongbuk.co.kr

2005. 8. 26. 경북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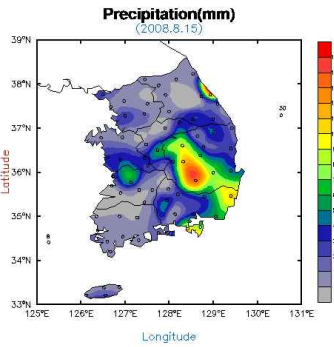
□ 집중호우(2008. 8. 15. - 대구)

○ 기압계 및 기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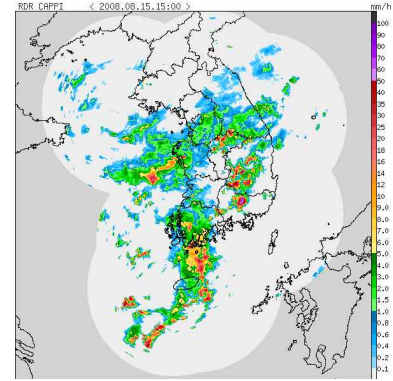
이날 대구는 남쪽에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일강수량 135.0mm의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으며, 시간당 30~70mm의 강한 비가 내렸음. 1시간 최다강수량이 대구 69.0mm로 8월 극값 3위, 구미 45.5mm로 8월 극값 3위, 상주 32.0mm로 8월 극값 2위를 기록하였음.



2008. 8. 15. 15:00 지상일기도



2008. 8. 15. 일강수량 분포



2008. 8. 15. 15:00 레이더영상

○ 지점별 관측자료(2008. 8. 15.)

단위 : mm

지 점	대구	구미	문경	의성	상주	영천	봉화	포항
1시간 최다 강수량	69.0	45.5	37.5	35.5	32.0	31.0	29.8	8.5

○ 집중호우 재해 관련 기사



M_BANNER_LM

15일 오후 대구와 경북 내륙지역에 많은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마영역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기상대는 이날 오후 5시쯤 기해 경북 군위, 안동, 의성, 청송 지역에 추가로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앞서 오후 4시30분에는 대구와 경북 구미, 성주, 김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후 들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려 오전부터 컷때 따라 10~9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한때 시간당 최대 66.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도가 역류해 대구, 경북지역의 일부 주택이 침수했다.

또 이날 오후 3시20분에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포천계곡에서 기습 폭우로 계곡물이 쏟아지면서 마영역 2명이 고립돼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기상대는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마영역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밤까지 20~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2008. 8. 15. 영남일보

광복절 피서인과...오후엔 폭우

대구·경북 일부지역 가옥·농경지 침수 등 피해

주말·휴일 비·무더위 다소 누그러질듯

제이주년 광복절인 15일 대구·경북 지역은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위 속에 폭우특강과 계속, 유한지이다 바뀌지 나서안과로 졸업했다. 하지만 오후들어 대구와 의성, 상주 등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 주택이 침수되고 아 영재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지역이 구름 덮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린 가운데 대구 69.0, 안동 34.2, 의성 33.1, 안동 32.3, 구미 31.9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보였다. 경북을 횡단한 폭우와 함께 이날 경북 동해안 해안가의 해수욕장은 이른 아침부터 무더위를 피해 도심을 탈출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포항 북부해수욕장과 영덕 고래해수욕장 등에는 휴가 피근의 박박자리를 마련해둔 수만명의 피서

객이 몰려 바다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식혔다. 불완전 수레공과 포항 내연산 계곡 등 대구와 경북 주요 계곡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천명씩 이르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줄을 이었다. 경북을 행사가 외딴 대구 도심도 영향을 보거나 소문을 나온 시민들도 북적였다. 7년 국도와 경부고속도로행선 경 '국' 부근 등 대구와 경북을 지나는 일부 국도와 고속도로는 박박이 추가 될 때나 는 차량들로 심한 지체세가 보이졌다. >2면에 계속

지 휴가원을 찾아 이번 연휴 한해 뚜렷한 30년대 이상의 피서객들이 대구·경북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우회도로 이용과 안전운행 등을 유도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대구에 시간 당 62.5mm의 강수량 폭우가 쏟아지는 등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시 합천구 두류동8 주택 일부는 하수도가 역류해 들어 잠겼고, 대구 신의동 대도시상도 일부 침수됐다. 경북 의성에서도 농경지 116ha가 침수되고 주택 15여채가 침수해 현안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또 이날 오후 3시20분에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포천계곡에서 기습 폭우로 계곡물이 쏟아지면서 마영역 2명이 고립돼 119구조대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다. >2면에 계속

내일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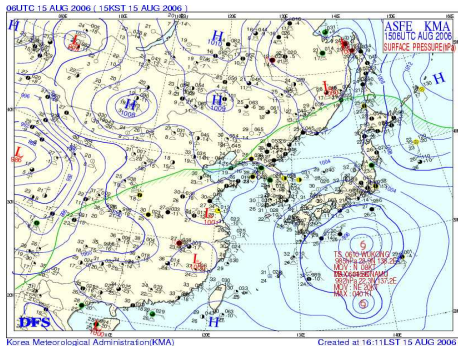
경도통신기 hnews@kbs.co.kr

2008. 8. 16. 대구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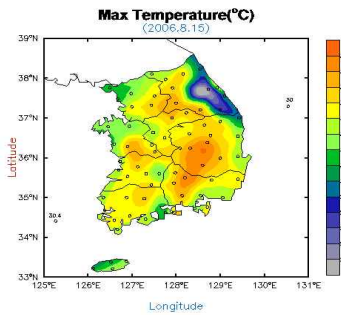
□ 폭염(2006. 7. 30.~8. 17.)

○ 기압계 및 기상 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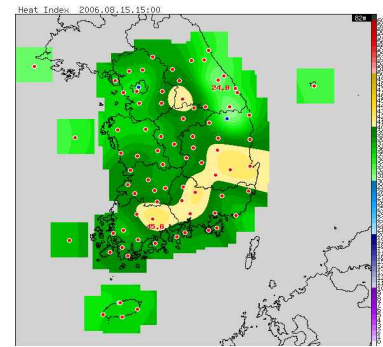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음. 폭염이 7월 30일부터 대구, 구미, 영천, 의성, 포항, 영덕을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계속되었음. 대구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17일간, 영천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6일간 낮 최고기온이 폭염경보 수준인 35℃를 넘었음.



2006. 8. 15. 15:00 지상일기도



2006. 8. 15. 일최고기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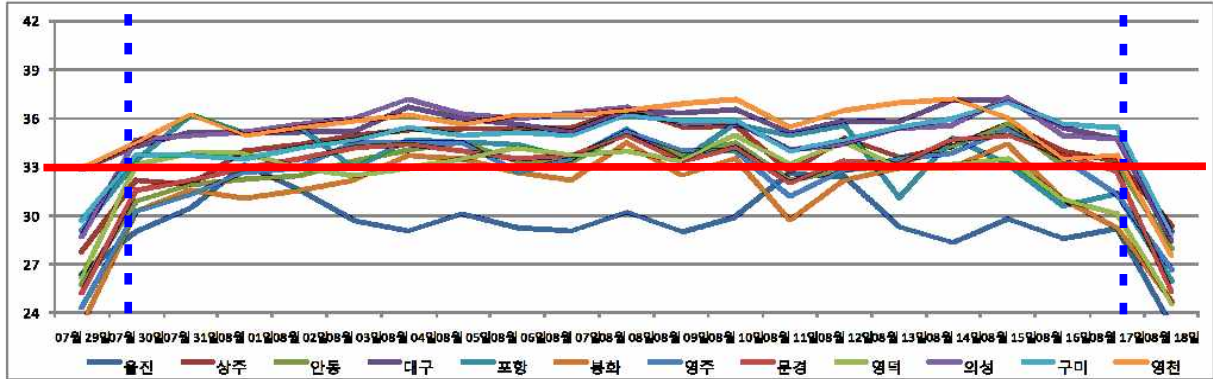


2006. 8. 15. 15:00 열지수 분포

○ 지점별 폭염 지속 기간

지점	최고기온 33℃ 이상			최고기온 35℃ 이상		
	시작일	종료일	지속기간	시작일	종료일	지속기간
울진	20060801	20060801	1	-	-	-
상주	20060801	20060810	10	20060803	20060810	8
	20060812	20060817	6	20060815	20060815	1
안동	20060803	20060810	8	20060808	20060808	1
	20060813	20060817	5	20060815	20060815	1
대구	20060730	20060817	19	20060731	20060816	17
	20060730	20060802	4	20060731	20060802	3
	20060804	20060812	9	20060808	20060808	1
포항	20060814	20060815	2	20060810	20060812	3
	20060804	20060805	2	-	-	-
	20060808	20060808	1	-	-	-
봉화	20060810	20060810	1	-	-	-
	20060813	20060815	3	-	-	-
	20060802	20060805	4	20060808	20060808	1
영주	20060807	20060810	4	20060815	20060815	1
	20060813	20060816	4	-	-	-
	20060801	20060810	10	20060808	20060808	1
문경	20060812	20060816	5	20060815	20060815	1
	20060730	20060802	4	20060810	20060810	1
영덕	20060804	20060815	12	-	-	-
	20060730	20060817	19	20060731	20060810	11
의성	20060730	20060817	19	20060813	20060816	4
	20060730	20060817	19	20060804	20060810	7
구미	20060730	20060817	19	20060813	20060817	5
	20060730	20060817	19	20060731	20060815	16
영천	20060730	20060817	19	-	-	-

○ 지점별 일최고기온(단위 : °C)



○ 폭염 재해 관련 기사

영남브리핑 | **경주 양계장 1만5천마리 폐사**
 ~ 경주 천북, 시설 열악 피해 더 심해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초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집단 양계장에서 모두 1만5천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이날 초부터 하루 평균 1천여 마리가 폐사한 셈이다. 또 무더위가 지속되자 하루 평균 관련 생산량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는 현재 287농가에서 215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천북면 신당리의 대규모 양계장은 300여농가에서 52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 중이다.

이달들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집단 양계장에서 폐사하는 닭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5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빈터민C 등을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망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폭염피해는 대부분 양계장 시설이 노후한 이 지역 영세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천북면 신당리에서 집단 양계장을 운영하는 이모씨(65)는 "이 일대 양계장 대부분이 시설이 열악한 데다 높은 배율부담으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06. 8. 17. 영남일보

축산농가 '무더위 비상'

연일 고온 기승... 폐사 우려 선종기 설치 등 대책 마련

기사 입력시간 : 2006-08-06 19:23

섭씨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들이 무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경북도는 6일 무더위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경우 곳곳에서 집단폐사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각 시군에 긴급 통신문을 보내 축사 내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그늘막 등 무더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깨끗한 물과 신선한 사료를 충분히 먹일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들도 더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고령군 우곡면 축산단지에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한편 오후 시간대에 축사에 물을 뿌리고 대형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 한우를 키우고 있는 일부 농가에서는 비타민제 등 영양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는 등 무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천의 한우축산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환풍기를 구입해 열기를 바깥으로 뿜어내고 있으며 다른 축산농가에서는 고형 소금기는 물론 얼음덩어리를 가축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소규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집단 양계농가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하루 30~50 마리의 닭이 무더위로 폐사했으며 의성군 가음면 의성축산에서는 닭이 먹는 사료량이 줄면서 평소 하루 27만여 개이던 계란 생산량이 25만 개로 폭 떨어졌다.

경북도 성만홍 축산과 계장 "폭염이 계속될 경우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시군으로 촉석기 대책을 전달했으며 축산농가들도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가축들의 체력이 떨어져 성장률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근영기자 gylee@daegu.com

2006. 8. 6. 대구일보

每日新聞 기사 프린트 | **16일째 열대야...오늘도 36도 '폭염'**

16일 오전 대구와 경북 포항에 또다시 열대야가 발생해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16일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와 포항지역의 최저기온이 각각 25.9도, 26.1도를 기록해 열대야 현상을 보였다.

이로써 대구지역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달 9일을 제외하고 홀몰이 16일째 열대야를 겪었으며 포항도 이달들어 12일째 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폭염더위를 나타냈다.

더구나 대구, 경북지역에는 이같은 무더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대는 "16일과 17일 경북 남서 및 북동 내륙 일부에 소나기가 예상될 뿐으로(16일) 대구 낮 최고 36도, 내일도 35도의 기온을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기사 작성일 : 2006년 08월 16일

2006. 8. 16. 매일신문

농작물 폭염피해...농가 '이중고'

사과 화상 고추 콩 등 발작물 생육 정지 속출

사과 주산지 경북지역의 사과농사와 고추, 콩 등 발작물의 폭염피해가 확산, 농업인들 이 한 해농사 실패를 우려, 가슴을 태우고 있다.

포항지역 사과단지 기계면 지역 과수원에는 연일 33~36도를 오르 내리는 불볕더위가 보름째 기승을 부리면서 한창 굵고 있는 사과가 마치 불에 덴 것처럼 갈색 명과 붉은 반점이 생겨나 상품가치를 잃고 있다.

이같은 폭염 상처는 나무마다 확산되자 과수농가들은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미세 살수 장치까지 가동, 안개 비를 뿌려 과수원의 기온을 낮추는 등 애쓴다.

폭염피해와 관련, 사과 재배농가 정모(50기계면 현내리)씨는 "더위가 유별나다 보니 사과도 온건하게 굵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폭염에 의한 상처는 처음 겪는 현상"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 피해가 확산되자 포항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은 과수나무 가지를 잘라 조금만 그늘을 만들고, 서쪽방향의 과수나무는 봉지를 서둘러 씌워 명과 피해를 막는 등 폭염 피해예방 지도에 나서고 있다.

발작을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상주지역은 천수답에 심은 고추와 콩, 들깨 등 발작물이 터들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부 작목은 고사 피해가 속출하고 열매 결실률이 떨어져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성과 영양 등지 고추주산지는 불볕 더위가 뻗으면서 고추가 제대로 굽지 못하고 또 생육에도 타격을 받아 생산량이 크게 줄게돼 '홍작농사'를 짓게 됐다든 농민들의 푸념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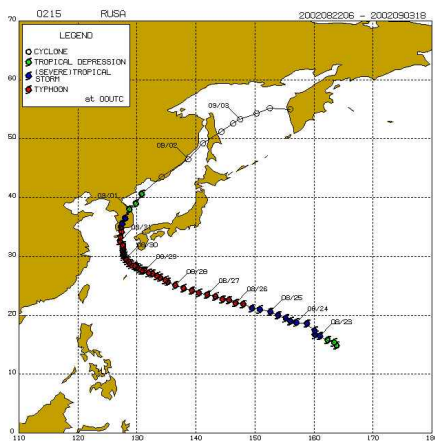
의성과 예천군도 콩과 함께 등 발작물이 가뭄피해가 확산되자 농민들이 양수기를 가동, 급수작전을 펴는 등 가뭄극복에 애단들이다. /김달년기자 kimdn@상주예천/황경연 김원희기자

2006. 8. 15. 경북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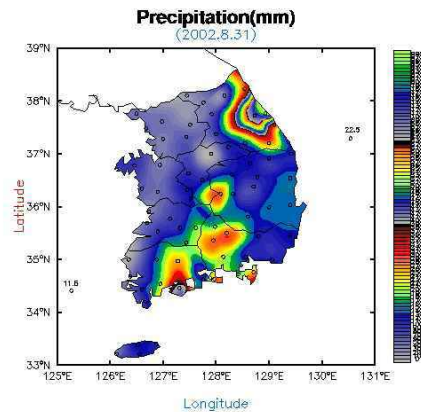
□ 태풍 “루사(RUSA)”(2002. 8. 31.)

○ 기압계 및 기상 상황

5조원의 기상재해를 발생시킨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RUSA)”가 북상하는 동안 강릉지방에는 8월 31일 장마전선에 의해 870.5mm의 일강수량을 기록하였고,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상주에 일강수량 192.5mm가 내려 8월 일강수량 극값 1위를 기록하였으며, 최대순간풍속 11~27m/s, 최대풍속 5~20m/s의 강풍이 불었음. 전국적으로 5조 1,479억원의 재산피해와 2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태풍으로 인한 가장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로는 10번째를 기록하였음.



2002년 15호 태풍 “루사(RUSA)” 이동 경로




2002. 8. 31. 강수량 분포

○ 지점별 관측자료(2002. 8. 31.)

지점	일최대풍속(m/s)	일최대순간풍속(m/s)	일강수량(mm)	1시간최다강수량(mm)
울진	20.0	26.6	113.0	15.0
안동	6.7	14.1	108.5	28.0
상주	10.7	21.8	192.5	27.0
포항	14.6	22.5	133.5	20.5
대구	15.3	21.3	134.5	25.0
봉화	6.6	13.6	107.0	18.5
영주	5.1	10.8	126.0	17.0
문경	6.4	14.6	127.0	21.5
영덕	16.4	21.7	138.5	20.0
의성	8.4	14.5	82.5	15.0
구미	8.2	15.1	132.0	21.5
영천	12.0	22.8	135.5	27.5

○ 태풍 “루사(RUSA)” 재해 관련 기사



M.BANNER.LM 태풍피해로 경부선 철도가 양분간 반쪽운행이 불가피하고 88고속도로 일 부구간이 지금까지 통제되고 있는 등 국가기간 교통망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철도= 전국 주요 철도망의 전면마비 상태는 1995년 태풍 '제니스' 이 후 두번째.

31일 밤 9시35분쯤 김천시 황금동 김천의 철교 교각 2개가 붕괴되면서 선로가 내려앉아 17시간 동안 모든 열차운행이 중단 됐던 경부선은 1일 오후 3시10분부터 교각 상행선의 가복구를 마치고, 단선으로 상 하행선을 등 병중이다. 그러나 하행선 은 가복구에 7-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열차갑편 및 지연 운행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경부선의 하행선을 복구할 때까지 열차 160여편 중 70% 정도만 운행되기 때문에 예약승객은 해당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선은 상주시 청리면 구간의 선로 유실로 2일 오전 8시27분 동대구역 영주행 무궁화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 동해남부 선도 31일 오후 선로 침수로 열차운행이 12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육계역에서 정동진역 사이 산사태로 청량리-영주 구간만이 운행돼 온 영동선에 대한 복구작업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청은 경부선 등 8개 노선 33곳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2일까지 대부분 노선의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 고속도로 11곳과 일반국도 84곳에 피해가 발생, 2일 현재 20여 곳의 복구가 완료됐다.

88고속도로 가조-해인사구간은 31일 오후 6시부터 도로 유실로 인해 양 차로 차량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도로공사측은 우선 유실된 도로의 한 차로만 긴급복구해 이르면 3일 오후부터 상 하행선을 교차 운행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가조-해인사구간의 정상 복구에는 7-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양분간 이 구간 통과차량을 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는 "차량을 국도와 지방도로 우회시키는 한편 폭 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유실된 구간이 많아 복구해 어려움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31일 오후 7시쯤 김천시 모암면 경부고속도로 김천IC 인근 김천이 범람하고 충북 영동군의 송천1.2교가 침수돼 김천-비 룡간 상 하행선이 8시간 동안 통제됐다.

이에 앞서 오후 4시30분쯤에는 영천시 대성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이 차량통행만 3시간 동안 중단됐다.

항공= 31일엔 국내선 대부분 항공편이 결항했다. 1일에도 대구-서울 등 국내선 36편이 결항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이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철도와 도로마저 끊겨 낭패를 겪어야 했다.


대구공항은 1일 오전 7시 대구를 출발, 김포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1500편 등 4편이 결항했으나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전 후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됐다.

해운=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의 운항이 지난날 30일부터 4일째 중단 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중부해상에는 2일 오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고 3-4m로 높게 밀어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을 통제하고 있다.

3일 오전부터는 여객선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정기자mcs12@yeongnam.com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02. 9. 2. 영남일보



충남 31명 사망·실종

◆태풍 인명피해 총 129명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경북에서 19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 등 전국적으로 12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경북 751억원, 대구 2억8천만원 등 전국적으로 2천9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1일 밤 현재)했는데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연 태풍으로 경북지역 농경지 47ha가 유실·매몰됐으며, 농작물 1만4천여 ha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87곳, 하천시설 136곳, 수리시설 80곳 등 866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김천지역 일부 정수장은 침수로 가동이 중단됐다.

경북에서 1천800가구 주민 4천959명이 비 피해로 긴급대피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경남 2천700명, 강원 2만여명 등 모두 4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경북 도내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 17곳이 산사태 또는 유실·침수로 인해 교통이 통제됐으며, 지난 31일 밤 경부선 김천철교 하행선 교각 2개가 무너져 통행이 금지됐다가 1일 오전 9시25분부터 상행선 단선으로 통행이 재개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부선 등 철도 8개 노선 33곳과 도로 95곳 등에 유실 또는 침수 피해가 발생, 국가 기간교통망이 마비됐으며 완전 정상화까지 1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김천, 영양 등 도내 곳곳에서 전기, 수도등 공급이 중단된데다 통신마저 두절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태풍 피해가 컸던 강릉시 등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사망 14명, 실종 16명의 인명 피해를 냈고 주택, 건물 8천393채가 침수 또는 파손됐다.

특히 강릉지역은 기상관측 이후 최대인 897.5mm의 비가 내려 시내 전역이 물바다로 변했고 강릉~정동진간 산사태로 철로 6곳이 파손, 이틀째 운행이 중단됐다.

또 영동, 동해고속도로도 산사태와 도로 유실로 통행이 중단됐다가 영동고속도로는 음곡복구로 1일 오후 통행이 재개됐지만 동해고속도로는 4일 오후에나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동강 하류지역의 경우 대부분 수위가 위험수위보다 평균 50cm 이상 높아져 범람위기를 맞았으며, 2일 새벽을 기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측은 "수위가 상승할 수 있는 최고수위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하, 합천댐 등 낙동강 상류지역 댐에서 방류량을 대폭 줄이거나 방류를 중단해 수위 상승폭이 더더지고 있지 만 위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추가 붕괴 및 범람을 막기 위해 독보강 등 방류 음곡복구작업을 벌였다.

정인열·김수용기자

기사 작성일 : 2002년 09월 02일

2002. 9. 2. 매일신문